

사람이 희망입니다.

KRIVET Issue Brief

2018

139호

발행인 나영선 | 발행일 2018년 1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한국의 사회정책 주요 지표 분석: 한국과 OECD 국가 비교

-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표들의 표준화 점수 전체 평균은 한국의 경우 -0.52점으로 나타나, OECD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속함.
-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세부 지표는 자살률로, 표준화 점수가 -3.36에 달함. 자살률 다음으로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(-1.78), 출산율(-1.32), 삶의 만족도(-1.04), 1인당 공공보건지출 부분(-1.01)이 상대적으로 취약함.
- 주요 사회정책 영역 중에서는 한국의 보건 지표가 OECD 35개국 중 33위, 형평성 지표는 30위로 최하위권임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정책 주요 영역과 지표를 확인하고, 한국의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.

| 주 |

이 글은 '채창균·조희경(2017), 『한국의 사회정책 주요 지표 분석 - OECD 사회지표를 중심으로』, 한국직업능력개발원'의 분석 내용을 발췌하여 재작성함.

-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, 사회통합, 소득주도성장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.
- 이 글에서는 OECD에서 중시하는 사회정책 지표들의 실태를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해 봄으로써 사회정책 차원에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파악해 보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OECD의 『Society at a Glance(2016)』

- OECD에서는 사회정책 지표를 크게 일반 지표, 자활 지표, 형평성 지표, 보건 지표, 사회통합 지표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함. 이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세 가지 세부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.
 - 우리나라에 대해 해당 값을 구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 지표로 선정함.
- 원 점수뿐만 아니라,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어떤 영역이나 지표가 더 취약한지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지표의 값들을 Z 점수로 표준화하여 분석함.

〈표 1〉 비교분석 사회정책 지표

영역	세부 지표	비고
일반 지표	합계출산율	평균적으로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연령별 출산율을 따르는 경우 갖게 되는 자녀 수
	평균 초혼 연령	초혼 당시의 평균 연령(남자와 여자 각각의 평균 초혼 연령을 단순 평균)
	노년부양비	20~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
자활 지표	고용률	15~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
	문제해결력	PIAAC 조사에서 문제해결력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
	학생 1명당 교육비 지출	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총 연지출액을 사용해 산출 (연구개발 활동 포함), 2012년 미 달러 PPP기준
형평성 지표	S90/S10 소득 심분위 비율	균등화 가처분 소득에 기초한 상위 10%와 하위 10% 간 평균 소득 격차 수준
	상대적 빈곤율	개인의 균등화 가처분 가구 소득이 해당국 중위 소득의 50%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
	공공사회지출 수준	GDP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
보건 지표	기대수명	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을지를 측정
	자살률	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
	1인당 공공보건지출	보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, 2015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미 달러 PPP기준
사회통합 지표	삶의 만족도	0(최악의 삶)부터 10(최상의 삶) 사이의 값 선택
	타인에 대한 신뢰	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
	재소자 비율	인구 10만 명당 재소자 수



KRIVET 모바일

02 사회정책 주요 지표의 국제 비교

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사회정책지표가 대체로 낮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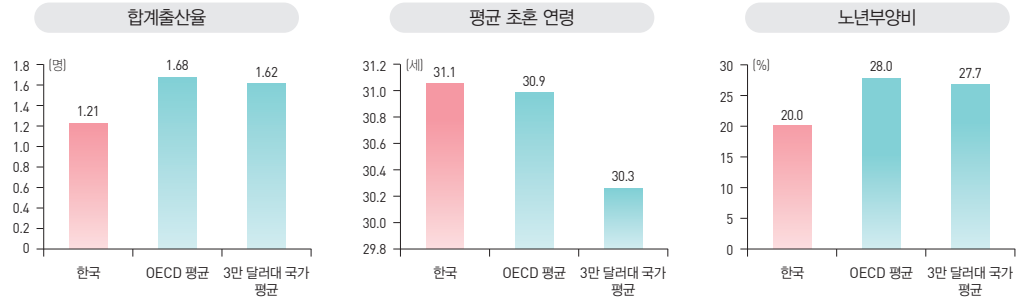
- 일반 지표를 보면, 한국은 합계출산율(1.12명)이 OECD 평균(1.68명)과 1인당 GDP 3만 달러대 국가(1.62명)¹⁾에 비해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임.

[각주]

1) 2016년 미 달러 PPP 기준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인 OECD 국가로, 한국(3만 5천 달러)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의 평균임. 원 보고서에는 소득 수준 별(5만 달러, 4만 달러, 3만 달러, 3만 달러 미만)로 사회정책지표를 제시하였으며,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 평균만 제시함.

[자료]

OECD(2016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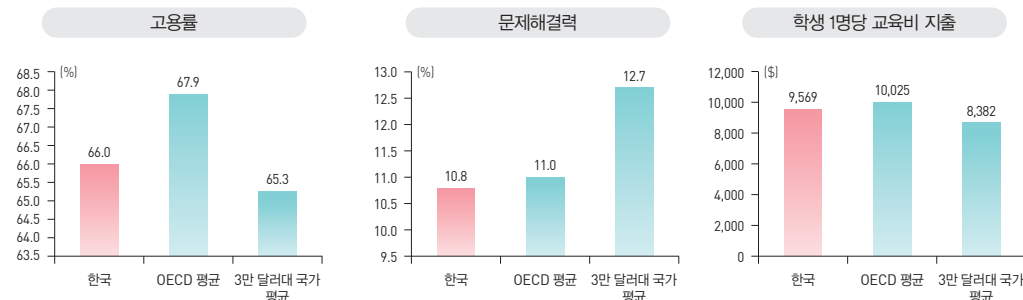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주요 일반 지표의 국제 비교

- 자활 지표의 경우, 한국의 15~64세 고용률(66.0%)은 OECD 평균(67.9%)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, 학생 1명당 교육비 지출 수준(9,569달러) 역시 OECD 평균(10,025달러)을 하회함.
 - 문제해결력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의 경우 한국(10.8%)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, OECD 평균(11.0%)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임.

[자료]

OECD(2016).



[그림 2] 주요 자활 지표의 국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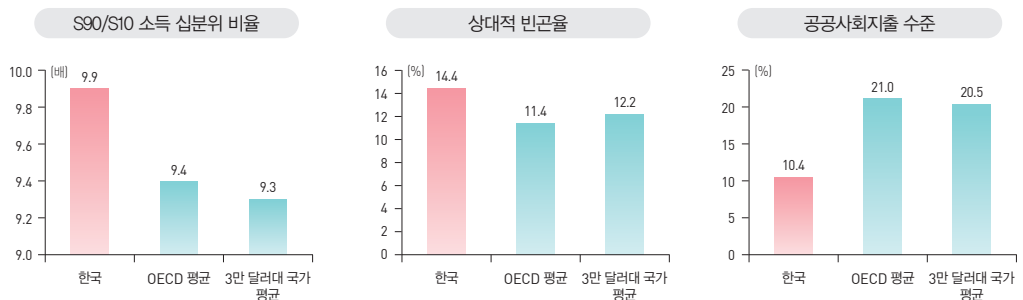
[각주]

2)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, 규모가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차이를 반영한 소득임.

- 형평성 지표 중 한국은 균등화 가처분 소득²⁾ 상위 10%와 하위 10% 간 평균 소득 격차가 9.9배로 나타나, OECD 평균(9.4배)보다 높음.
 -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.4%로 OECD 평균(11.4%)과 1인당 GDP 3만 달러대 국가들(12.2%)에 비해서도 매우 높음.
 -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10.4%로 OECD 평균(21.0%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, 같은 3만 달러대 국가(20.5%)보다도 낮은 수준임.

[자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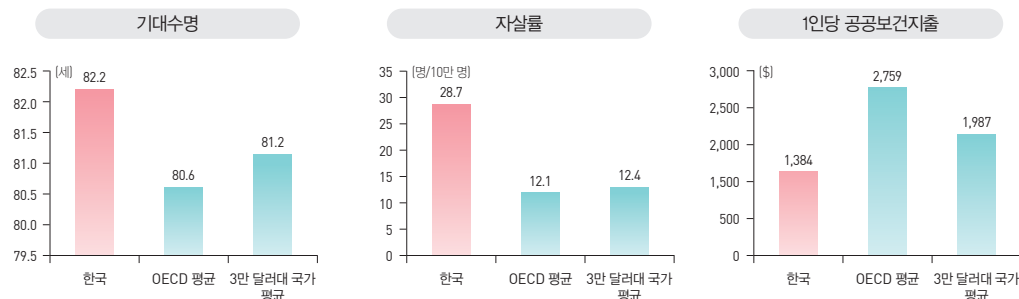
OECD(2016).



[그림 3] 주요 형평성 지표의 국제 비교

- 보건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.2세로 OECD 평균(80.6세)보다 높은 편임. 그러나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.7명으로 OECD 평균(12.1명)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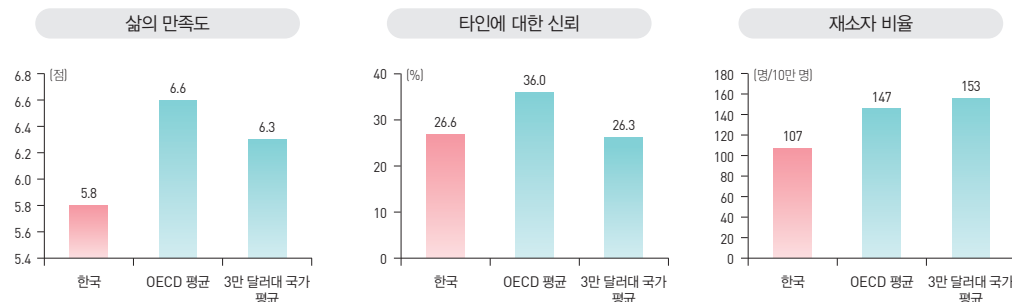
자료 |
OECD(2016).



[그림 4] 주요 보건 지표의 국제 비교

- 사회통합 지표를 살펴보면, 한국은 재소자 비율을 제외하고는 삶의 만족도(5.8점)와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(26.6%)이 OECD 평균(각각 6.6점, 36.0%)보다 낮은 편임.

자료 |
OECD(2016).



[그림 5] 주요 사회통합 지표의 국제 비교

03 표준화 점수에 따른 국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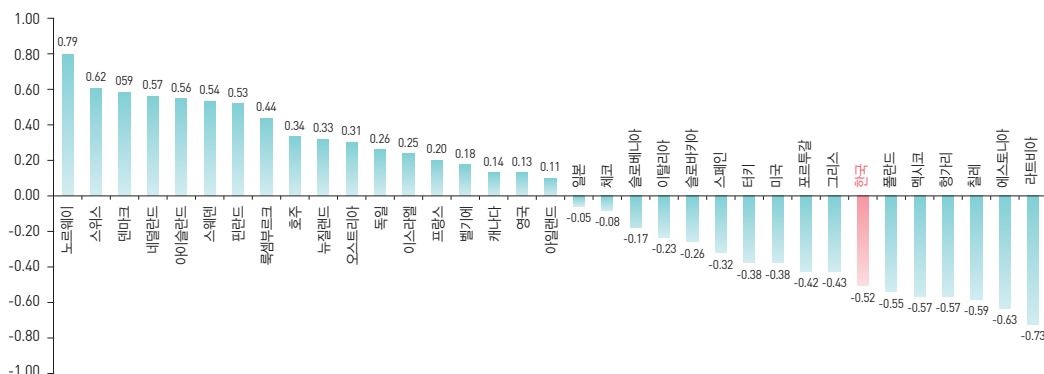
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지표의 표준화 점수 전체 평균은 OECD 35개국 중 하위권에 속함.

각주 |

3) Z 점수는 '해당 지표의 값 - 평균' / '표준편차'로 계산되며(여기에서 평균은 0, 표준편차는 1), 특정 지표의 값이 그 지표의 평균보다 클 때는 양(+)의 값, 평균보다 작을 때는 음(-)의 값을 갖게 됨. 어떤 지표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Z 점수에 -1을 곱해주었음. 만약 어떤 지표의 Z 점수가 1이 라면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상황을 의미하며, -1은 평균보다 1표준편차 작은 상황을 의미함.

자료 |
OECD(2016)을 토대로 재작성.

-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표들의 표준화 점수(Z 점수³⁾) 전체 평균은 -0.52점으로, OECD 35개국 중 29 위임.
 - 한국보다 표준화 점수의 평균값이 낮은 OECD 국가는 폴란드, 멕시코, 헝가리, 칠레,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 정도임. 표준화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이며, 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.
 - 기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소외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줌.



[그림 6] 국가별 사회정책 지표의 표준화 점수 전체 평균

|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정책 지표는 자살률임.

-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세부 지표는 자살률(-3.36)임.
 - 자살률 다음으로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(-1.78), 출산율(-1.32), 삶의 만족도(-1.04), 1인당 공공보건지출(-1.01)의 표준화 점수가 OECD 평균보다 1표준편차 이상 작은 것으로 나타남.
- 5개 영역 중에서는 보건 지표(-1.25)와 형평성 지표(-0.89)의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함.
 - 보건 지표의 경우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, 자살률이 매우 높고 1인당 공공보건지출 수준 역시 낮아 OECD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임.
 - 형평성 지표의 경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최하위권이고 나머지 두 세부 지표 또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해, 한국의 형평성 영역은 OECD 35개국 중 30위임.
 - 평균을 상회하는 영역은 자활 지표가 유일함.

〈표 2〉 한국의 사회정책 지표별 표준화 점수와 순위

영역	세부 지표	표준화 점수	순위	상/중/하
일반 지표	출산율	-1.32	35(35)	하
	평균 초혼 연령	-0.25	19(35)	중
	노년부양비	1.12	4(35)	상
	평균	-0.15	18(35)	중
자활 지표	고용률	-0.25	20(35)	중
	문제해결력	0.53	9(19)	중
	학생1명당 교육비 지출	-0.11	17(32)	중
	평균	0.12	15(35)	중
형평성 지표	S90/S10 소득 십분위 비율	-0.13	22(35)	중
	상대적 빈곤율	-0.77	26(35)	하
	공공사회지출 수준	-1.78	34(35)	하
	평균	-0.89	30(35)	하
보건 지표	기대수명	0.63	11(35)	중
	자살률	-3.36	35(35)	하
	1인당 공공보건지출	-1.01	27(35)	하
	평균	-1.25	33(35)	하
사회통합 지표	삶의 만족도	-1.04	28(35)	하
	타인에 대한 신뢰	-0.53	23(35)	중
	재조사 비율	0.35	18(35)	중
	평균	-0.41	23(35)	중
전체 평균		-0.52	29(35)	하

[자료]
OECD(2016)을 토대로 재작성.

04 시사점

- 복지와 분배를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보는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같이 가야하며, 사회정책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.
- OECD 국가 대비 가장 심각한 한국의 사회정책 지표는 자살률임.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축이 필요함.
 - 자살률과 같은 사회문제는 특정 한 두 개 부처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, 범부처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.
- 형평성 제고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하며, 특히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.
- 사회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. 주요 사회정책지표 중 한국의 상대적 수준이 특히 낮은 부분이 바로 사회정책과 관련된 공공 지출 수준임을 간과해선 안 됨.

채 창균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